

# 시간절약재화 및 서비스 요구와 소비행동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 A Study on Need and Consumption Behavior for Time-saving Goods and Services)

인제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 諸 美 卿

*Dept. of Home Management  
Inje University*

*Assistant Prof. : Mie Kyung, Jae*

동국대학교 가정교육학과

교수 : 朴 明 姬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Prof. : Myung Hee, Park*

본 연구는 취업주부의 시간절약재화 및 서비스 요구와 소비행동의 차이를 조사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서울 및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는 40대 이하 취업주부 401명이다. 연구결과, 시간절약재화 및 서비스 요구는 소비행동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절약재화 및 서비스 요구와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인구학적 변수는 가계생산이론에 근거하여 시간의 가치와 관련된 변수인 주부의 교육수준, 직업지위와 주부소득이었고 주부의 연령, 가족수 등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시간절약재화 및 서비스 요구와 소비행동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수는 가정목표지향성, 경제적취업동기와 경제외적취업동기이고 직업목표지향성도 편의식품 사용정도를 제외하고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취업주부의 시간절약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 I. 서 론

1970년대 이후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의 증가<sup>1)</sup>는 그들 가족에 대한 역할과 소비행동에 변화를 가져왔다. 시간은 축적될 수 없는 자원이기 때문에 취업주부가 과중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시간의 가치의 중요성이 고려되어야 하고 이는 재화의 생산방식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런데 기혼취업여성들은 가사일이 여성의 주업무라는 전통적인 가치관과 교육수준의

\* 본 연구는 1994년도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발췌하여 실은 것이다.

향상 및 경제활동참여에 의해 고무되는 진취적인 사회의식을 가지고 가정과 직장이란 두가지 세계속에서 갈등을 느낄 수 있다(손덕수, 1986). 이러한 이중역

1) 우리나라의 경우 1965년에서 1990년간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수는 2,839천명에서 7,341천명으로 2.5 배 이상이 증가하였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65년에 37.2%, 1975년에 41.4%, 1990년에 47%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2)로 증가하였다. 이중 취업주부는 1990년 현재 5,541천명으로 취업여성중 75.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대에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50.2%(박명수, 1990)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할에 대한 갈등은 여성이 가정과 직장의 역할을 동시에 담당함으로써 생기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직업일에 대한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어왔다. 취업주부가 역할과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족원들에게 가사일을 분담시키는 전략과 가계생산에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신 시간절약재화 및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가사일에 드는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후자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시간절약재화 및 서비스를 요구하는 정도와 실질적으로 소비하는 정도에 대한 차이를 조사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사회경제, 인구학적변수와 심리적변수에 따라 분석하여 취업주부 가정의 소비 패턴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는 취업주부들이 사회진출을 함에 따라 점점 귀중해지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주부의 소비생활을 풍요롭게 만들고 소비자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주부의 취업과 시간절약재화 및 서비스 요구와 소비행동

소비자 행동에서 시간자원의 역할은 오랫동안 간과되어 왔으나 최근에 재화 및 서비스 구매와 소비에서 시간자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미래사회에서는 시간은 점점 더 값비싸고 희소한 자원이 될 것이므로 시간의 효율적인 사용여부는 사회생활의 성공여부와 생활의 질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취업주부들은 시간절약에 대한 욕구가 높기 때문에 시간의 가치에 따라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달라질 것이다. 특히 취업주부는 전업주부보다 가사일에 대한 시간의 한계가치가 더 높아 다른요소가 일정하다면, 취업주부가족은 가계생산에 시간을 덜 사용하고 재화를 더 많이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Becker, 1965). 주부의 취업과 시간절약내구재 지출과의 관계는 가계생산을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 내구재 수요가 증가한다는 연구들(Agarwala & Drinkwater, 1972; Schaniger & Allen, 1981)과, 한편으로는 관

계가 없다는 연구들이 있다(Strober, 1977; Strober & Weinberg, 1980; Weinberg & Winer, 1983; Bryant, 1988).

주부의 취업과 편의식품 및 서비스 소비행동의 경우는 가계생산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미국에서 평균가족수가 1960년 3.33인에서 1990년 2.47인으로 줄었고 기혼여성의 반이상(1987년에 57%)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되자 외식패턴에 변화를 가져왔다(McCracken & Brandt, 1990). 이는 취업주부의 생활양식변화와 소득증가로 인해 가정내 생산활동이 변한 결과로 주부의 시간가치가 증가할때 가정식을 외식으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부의 취업이 외식지출을 오히려 낮춘다는 연구(Lee & Brown, 1986)와 외식지출에 독립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Goebel & Hennon, 1983)도 있어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외에 주부의 취업상태와 서비스지출을 조사한 연구들은 취업주부들이 가사일을 서비스구매로 대체하는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자녀돌보기나 식사준비는 정기적으로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비스와 대체가 되고, 의복관리나 가사서비스는 주부가 편한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므로 대체가 되지 않고(Yang, 1988), 취업주부가족은 주부의 노동에 대한 기회비용과 관련있는 지출항목(자녀돌보기, 교통비, 의복비, 외식)에 더 소비한다(Jacobs, Shipp & Brown, 1989)는 것을 밝히고 있다.

취업주부의 시간절약재화에 대한 요구와 소비행동의 직접적인 관계를 연구한 논문은 없지만, 단지 한 연구(채옥희, 1991)에서 노년기주부의 가사노동 사회화에 대한 기대가 실태보다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 2. 시간절약재화 및 서비스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 1) 사회경제·인구학적 변수

사회경제 인구학적 변수로는 시간의 가치와 관련이 있는 직업지위, 주부소득, 교육수준과 연령, 가족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직업지위가 낮은 주부는 직업지위가 높은 주부 또는 가정주부 보다 편의식품과 음료를 더 많이 소비하는

경향이 있지만(Schaniger & Allen, 1981), 우리나라의 경우 고소득 계층에서만 고급직 취업주부들이 전업주부보다 편의가공품을 더 많이 소비하고(이용학, 1985), 고소득 전문직주부가 저소득 비전문직주부에 비해 가정기기, 라면을 제외한 편의품, 서비스를 많이 소비했다(이승미, 1989).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시간절약제화 및 서비스 소비가 증가하는데(Yang, 1988; 문숙재 정지영, 1991), 이는 소득이 증가하면 시간의 가치가 증가하고 교육수준이 높아지면 가사노동을 간소화하고 합리화 하려는 욕구가 강해지기 때문이다.

연령과 가족수는 시간절약제화 및 서비스 소비와 부적인 관계에 있으나(Yang, 1988; 이기춘 외, 1989; 채옥희, 1991), 다른요소를 고려할 때 관련이 없다는 연구(Strober, 1977; 김미향 외, 1988; 문숙재·정지영, 1991)등도 있다.

2) 심리적 변수

시간 절약 제화 및 서비스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수로는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역할과중, 목표지향성, 취업동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역할과중

기혼여성의 취업증가는 역할과중을 줄이기 위해 시간절약제화 및 서비스 소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역할과중은 시간절약내구재 소유와 정적인 관계가 있고(Reilly, 1982), 편의식품과는 무관하지만(Reilly, 1982; 김미향 외, 1988), 시간제약의 맥락에서 시간제약을 많이 느낄수록 시장제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게 된다(조성은·문숙재, 1991).

(2) 목표지향성

목표는 가치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가치를 가정일에 두느냐 직장일에 두느냐에 따라 목표가 달라진다. 가사노동을 가치있는 것으로 인식할 경우 가사노동을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시간절약제화 및 서비스 요구와 사용이 줄어들지만(문숙재·정지영, 1991) 외국의 경우 가정지향성이 높아 가사일을 한다는 것은 가사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제화가 많아 이를 사용하여 집안일을 편리하게 하는 것이다(Joag, Gentry & Ekstrom, 1991). 반면 직업목표지향성이 강한 주부는 가정목표지향성이 강한 주부에 비해 집에서 식

사준비와 세탁을 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Joag, Gentry & Ekstrom, 1991), 직업목표지향성은 가사일을 축소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가정목표지향성은 가사일을 더 잘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3) 취업동기

여성이 일을 하려는 이유는 경제적인 동기와 경제 외적인 동기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생활수준이 높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주부들은 소득으로 가사일을 가정고용인, 시장제, 용역등으로 대체하지만, 생활수준이 낮고 비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는 경제적 필요에 의해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체를 하지 못하므로 역할과중이 높아지고 생활의 질은 낮아진다(한경미, 1991).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취업주부들의 시간절약제화 및 서비스 요구와 소비행동은 의미있는 차이를 보일 것인가?

〈연구문제 2〉 취업주부들의 시간절약제화 및 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소비행동은 사회경제·인구학적변수(직업지위, 주부소득, 주부의 교육수준, 주부의 연령, 가족수)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보일 것인가?

〈연구문제 3〉 취업주부들의 시간절약제화 및 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소비행동은 심리적변수(역할과중, 목표지향성, 취업동기)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보일 것인가?

2. 측정도구

각 측정도구의 타당도는 관련전공교수등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증을 받았고 신뢰도는 Cronbach의 알파계수를 이용하였다.

1) 시간절약제화 및 서비스 요구와 소비행동

시간절약제화 및 서비스는 가사노동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중 시장에서 구매가능한 시간절약내구재, 편의식품, 시간절약서비스를 말한다.

시간절약내구재, 편의식품 및 서비스 요구는 취업

주부들이 시간절약재화 및 서비스를 현재 필요로 하는 필요정도로 5점척도로 측정이 되었고, 각각의 신뢰도 계수는 .85, .78, .78이다. 소비행동은 취업주부들이 시간절약내구재, 편의식품 및 서비스를 현재 사용하는 사용정도로 5점 척도로 측정이 되었고 각각의 신뢰도 계수는 .73, .75, .61이다.

## 2) 심리적 변수

### (1) 역할 과중

역할과중은 취업주부가 직장일과 가정일을 병행할 때 여러가지 역할 수행에 관해 시간과 에너지의 제약으로 그 역할을 적당하게 수행 할 수 없을 때 느끼는 정도로 본 연구에서는 13개 문항을 5점척도로 측정된 점수의 합으로 신뢰도 계수는 .86이다.

### (2) 목표지향성

목표지향성은 직업목표지향성과 가정목표지향성으로 구성이 된다. 직업목표지향성이란 직장일과 가정일을 병행할때 자신의 목표를 직업일에 두는 정도에 대한 취업주부의 성향을 말하고, 가정목표지향성이란 자신의 목표를 가정일에 두는 정도에 대한 취업주부의 성향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목표지향성을 6개문항에 대해 5점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신뢰도 계수는 각각 .72, .72이다.

### (3) 취업동기

취업동기는 가계수입을 보조하기 위한 의미도 있으나 일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면도 있다. 이를 경제적동기와 경제외적동기로 구분을 하여 각각의 취업동기에 대한 정도를 측정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각각 4문항에 대해 5점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신뢰도 계수는 각각 .75, .79이다.

2) 40대 이하를 조사대상으로 한 이유는 시간절약재화 및 서비스를 소비하는 이유가 여러역할을 수행하는데서 오는 어려움 때문인데 연령이 50대 이상의 세대는 가사고용원을 구하기가 비교적 쉬웠고 또한 자녀양육이 대부분 끝난 시기이지만 연령이 40대 이하의 세대는 직종간의 임금수준의 격차가 해마다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가사고용원을 구하기도 어려워지고 따라서 이러한 세대가 역할과중을 시간절약재화 및 서비스로 대체 할 수 있는 세대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 3. 조사대상, 자료수집,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자녀가 학령기에 있고 남편이 있는 40대 이하의 기혼취업여성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sup>2)</sup>. 본조사는 기초 조사와 예비조사후 1993년 5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 한달동안 가정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30명으로 구성된 면접자들이 설문지를 가지고 조사하였다. 본조사에서는 대상자들의 직업분포를 다양화 하기 위하여 직업지위를 고려하여 임의표집을 한뒤 한국표준직업분류(1992)를 근거로 전문직, 공무원·사무직, 판매·서비스직, 생산·노무직으로 나누어 총 401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를 이용하여 빈도분포,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paired t-test, 일원분산분석 및 단칸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다.

##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 IV. 결과 및 논의

### 1. 시간절약재화 및 서비스 요구와 소비행동

#### 1) 시간절약내구재 요구와 소비행동

시간절약내구재의 경우 세탁기, 전기청소기, 전자레인지, 전기후라이팬, 주서·믹서등 소유율이 높은 내구재가 필요정도와 사용정도가 높았다. 반면 그릇세척기, 전기가스오븐, 후드프로세서와 같은 아직 소유율이 낮은 내구재 일수록 필요정도와 사용정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앞으로 이런 내구재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필요정도와 사용정도의 평균차이 검증 결과 모든 항목에서 필요정도가 사용정도보다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2).

#### 2) 편의식품 요구와 소비행동

라면류, 식빵, 햄·소세지, 청량음료는 필요정도와 먹는정도가 많았고, 상품화된 된장·고추장, 통조림, 즉석찌개거리는 다른 편의식품에 비해 필요정도와 먹는정도가 비교적 차이가 많이 났다. 편의식품의 필요정도와 먹는정도의 차이는 내구재에 비해 크지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401

	전문직	공무원·사무직	판매·서비스직	생산·노무직	전체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주부의 연령	34 ( 5.3)	33.1( 5.0)	37.8( 7.2)	41.8( 8.0)	36.5( 7.2)
전체소득(원)	225만(95만)	231만(76만)	242만(113만)	158만(55만)	226만(96만)
주부소득(원)	110만(46만)	94만(40만)	116만( 72만)	55만(21만)	96만(54만)
지출(원)	118만(66만)	89만(43만)	111만( 70만)	71만(31만)	99만(59만)
핵가족비율(%)	82.9	90.2	89.8	85.2	87.1
자가비율(%)	60.0	51.5	57.8	41.7	53.4
결혼지속년수(년)	7.4( 4.7)	6.8( 5.7)	12.7( 7.7)	18.4( 8.4)	11 ( 8.2)
가족수(명)	3.7( 1.2)	3.7( 1.2)	3.9( 1.1)	4.5( 1.1)	3.9( 1.2)
자녀수(명)	1.3( .8)	1.2( .8)	1.7( 1.0)	2.3( .9)	1.6( .9)

표 2. 시간절약내구재 요구와 소비행동의 평균차이 검증

변수	소유율	필요정도	사용정도	차이 <sup>a</sup>	t값
	M(SD) <sup>b</sup>	M(SD)	M(SD)	M(SD)	
1. 세탁기	.99( .09)	4.79( .46)	4.57( .70)	.22( .57)	7.51***
2. 전기청소기	.71( .45)	3.82(1.24)	3.14(1.55)	.68(1.04)	13.08***
3. 그릇세척기	.09( .29)	2.52(1.13)	1.22( .79)	1.30(1.15)	22.66***
4. 전자레인지	.74( .44)	3.69(1.16)	3.02(1.45)	.67(1.03)	12.81***
5. 전기후라이팬	.70( .46)	3.12(1.20)	2.28(1.18)	.84(1.01)	16.89***
6. 쥬서 믹서	.84( .37)	3.59(1.07)	2.77(1.18)	.82(1.02)	16.02***
7. 전기가스오븐	.23( .42)	2.67(1.23)	1.56(1.13)	1.11(1.13)	19.79***
8. 후드프로세서	.17( .37)	2.45(1.21)	1.37( .93)	1.08(1.08)	20.02***
합계(SD)	4.48(1.54)	26.67(6.27)	19.94(5.41)	6.72(4.50)	29.92***

df(자유도)=400 \*\*\*p<.001

a : 차이=필요정도-사용정도

b : M(SD) : 평균(표준편차)

않았는데 이는 아직까지 다른 가정일에 비해 가정에서의 식사준비가 시간절약재화로 가장 대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필요정도와 사용정도의 평균차이 검증 결과 모든 항목에서 필요정도가 사용정도보다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3).

### 3) 시간절약서비스 요구와 소비행동

세탁소서비스의 필요정도와 사용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파출부와 탁아모위탁서비스의 필요정도와 사용정도는 낮은 수준이었다. 탁아모위탁에 대한 서비스 필요정도와 사용정도가 낮은 이유는 미취학자녀가 있는 특정계층만 이 서비스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필요정도와 사용정도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옷수선 서비스로 앞으로 이부분에 대한 수요증가를 예측할 수 있다. 두변수간의 평균차이

검증 결과 모든 항목에서 필요정도가 사용정도보다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전체적으로 볼때 취업주부들은 시간절약재화 및 서비스 필요정도를 사용정도에 비해 많이 느끼고 있었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간절약재화 및 서비스는 취업주부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앞으로도 취업주부의 가정일을 덜어줄 수 있는 이러한 재화 및 서비스들이 더 많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 2. 사회경제·인구학적변수에 따른 시간절약재화 및 서비스 요구와 소비행동

직업지위와 주부소득에 따라 시간절약내구재 및 서비스 요구와 소비행동은 차이가 났다. 그러나 편

표 3. 편의식품 요구와 소비행동

변 수	월지출액(천원)	필요정도	먹는정도	차 이 <sup>a</sup>	t값
	M(SD) <sup>b</sup>	M(SD)	M(SD)	M(SD)	
1. 라면류	3.70( 3.87)	3.66( .87)	3.08( .76)	.60( .77)	15.05***
2. 식 빵	5.00( 5.41)	3.70( .92)	3.16( .92)	.54( .83)	13.07***
3. 햄 소세지	6.31( 5.98)	3.34( .96)	2.86( .96)	.48( .82)	11.74***
4. 청량음료	5.92( 7.28)	3.32(1.0 )	3.00( .94)	.32( .81)	7.96***
5. 레토르트	1.91( 4.21)	2.42( .98)	1.87( .85)	.55( .84)	13.18***
6. 된 고추장	1.67( 3.47)	2.80(1.41)	2.12(1.25)	.68( .95)	14.29***
7. 김 치	.41( 1.51)	1.84(1.03)	1.27( .62)	.57( .87)	12.96***
8. 구이김	2.95( 3.40)	3.14(1.14)	2.71(1.20)	.43( .85)	10.29***
9. 통조림	3.07( 4.36)	2.98(1.06)	2.36( .97)	.62( .95)	13.07***
10. 반 찬	2.74( 5.45)	2.49(1.21)	1.93(1.08)	.56( .96)	11.76***
11. 냉동식품	4.64( 6.17)	2.86(1.07)	2.28( .97)	.58( .95)	12.23***
12. 찌꺼거리	1.87( 7.37)	2.14(1.10)	1.53( .89)	.61( .89)	13.75***
합계(SD)	40.05(27.56)	34.70(6.94)	28.17(6.08)	6.53(5.04)	25.29***

df(자유도)=400 \*\*\*p<.001

표 4. 시간절약서비스 요구와 소비행동

변 수	월지출액(천원)	필요정도	먹는정도	차 이 <sup>a</sup>	t값
	M(SD) <sup>b</sup>	M(SD)	M(SD)	M(SD)	
1. 외 식	39.47( 62.78)	3.36( .90)	2.82( .78)	.54( .78)	13.89***
2. 배달음식	13.60( 28.26)	3.17(1.02)	2.53( .88)	.64( .81)	15.73***
3. 세탁소 <sup>c</sup>	19.65( 40.62)	4.09( .94)	3.21( .87)	.88( .76)	23.10***
4. 옷수선 <sup>c</sup>	5.39( 25.36)	3.41(1.21)	2.29( .92)	1.12(1.00)	22.60***
5. 파출부	21.09( 91.85)	2.04(1.28)	1.30( .82)	.74(1.06)	13.95***
6. 탁아모위탁	19.82( 71.90)	2.09(1.50)	1.39(1.05)	.70(1.25)	11.13***
합계(SD)	119.28(221.26)	18.15(4.75)	13.54(3.07)	4.61(3.38)	27.32***

df(자유도)=400 \*\*\*p<.001

c: 세탁소와 옷수선은 연간사용횟수를 말함

의식품의 경우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소비행동은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이는 아직까지 주부의 가사노동시간과 노력을 경감시켜줄 수 있고 주부의 기호에 맞는 고급편의식품이 개발되지 않은 탓일수도 있다.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시간절약재화 및 서비스 요구와 소비행동이 많았다. 단지 편의식품 요구와 소비행동은 전문대집단이 다른집단보다 높았다.

시간의 가치와 관련이 있는 직업지위, 주부소득, 주부의 교육수준에 따라 시간절약재화 및 서비스 소비가 차이가 난 것은 Becker(1965)등이 언급했듯이 가계생산이론에 입각하여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생산수준과 소득이 증가하고 시간에 대한 가치가 높아 지기 때문에 이러한 집단은 재화 및 서비스를 사용

함으로써 가사노동을 간소화 하려는 것이다.

또한 주부소득은 시간절약내구재의 경우 내구재에 투자 또는 저축한다고 가정하는 논쟁(Mincer, 1960)을 지지할 수 있고 또는 Dusenberry의 상대소득가설과 같이 준거집단과 같이 되려는 노력에서 시간절약내구재를 더 소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주부의 연령에 따라 시간절약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차이가 났으나 소비행동은 단지 서비스의 경우에 차이가 났는데 사후검증결과 20대, 30대 집단이 40대 집단에 비해 소비정도가 많았다. 이는 연령은 편의식품 소비와 관련이 없다는 연구결과(김미향 외, 1988)와 일치하고, 서비스의 경우 연령과 부적인 관계가 있다는 여러연구 결과(이기춘 외, 1989; 채욱

회, 1991)와 일치한다. 그 이유는 젊은 연령층의 취업주부들은 시간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고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자 하는 편의주의적인 경향이 높기 때문에 시간절약재화 및 서비스를 많이 필요로 하지만 연령이 높은 주부들은 새로운 시간절약재화 및 서비스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보다는 가사노동을 직접 수행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시간절약재화 및 서비스를 덜 필요로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가족수에 따라서는 가족수가 3명인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편의식품 및 서비스를 더 많이 요구하고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절약내구재의 경우 이미 각가정에서 내구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수에 따라 그 사용정도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편의식품 및 서비스의 경우 가족수가 많으면

편의식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기 보다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거나 가사일을 수행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편의식품 및 서비스의 사용을 덜하게 될 것이다(표 5)

### 3. 심리적변수에 따른 시간절약재화 및 서비스 요구와 소비행동

#### 1) 역할과중

역할과중에 따라 시간절약재화 및 서비스 요구는 차이가 났지만 소비행동은 차이가 나지 않았고 이는 Reilly(1982)와 김미향 외(1988)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 결과는 역할과중을 인식하고 있는 취업주부들이 편의식품과 서비스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역할과중을 줄이기 위해 재화를 사용하지 않는 것인데, 그

표 5. 사회경제·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시간절약재화 및 서비스 요구와 소비행동의 일원분산분석

변수	구분	빈도	시간절약내구재				편의식품				시간절약서비스			
			요구		소비행동		요구		소비행동		요구		소비행동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직업 지위	전문직	105	28.64	a	21.64	a	35.79	a	29.04	a	20.05	a	15.06	a
	공무원·사무직	102	27.84	ab	20.46	a	35.71	a	28.59	a	19.12	ab	13.60	b
	판매·서비스직	109	26.93	b	20.21	a	34.17	ab	28.03	a	18.59	b	13.71	bc
	생산·노무직	85	22.45	c	16.87	b	32.68	b	27.37	a	14.10	c	11.56	d
	F값		20.04***		14.29***		4.17**		1.19		33.90***		20.24***	
주부 소득	70만원이하	141	23.87	b	17.48	b	33.34	b	27.29	a	15.93	c	12.27	c
	71-110만원	144	27.57	a	20.75	a	35.20	a	28.72	a	18.51	b	13.66	b
	111만원이상	116	28.92	a	21.92	a	35.73	a	28.56	a	20.41	a	14.95	a
	F값		25.81***		27.08***		4.50***		2.41		33.65***		27.59***	
주부 교육 수준	중졸이하	88	22.67	c	16.22	c	30.99	c	26.17	c	14.31	c	11.23	c
	고졸	140	26.12	b	19.37	b	35.13	b	28.52	b	17.80	b	12.91	b
	전문대졸	58	29.05	a	22.23	a	38.23	a	31.44	a	19.68	a	14.55	a
	대졸이상	124	28.76	a	21.94	a	34.70	b	27.93	bc	20.23	a	15.36	a
	F값		20.98***		26.01***		13.28***		7.97***		31.87***		35.07***	
주부 연령	20대	71	26.31	ab	20.03	ab	36.03	a	28.90	a	19.51	a	14.07	a
	30대	210	27.53	a	20.46	a	35.36	a	28.55	a	18.91	a	14.01	a
	40대	119	25.38	b	19.03	b	32.71	b	29.48	a	15.94	b	12.53	b
	F값		4.70**		2.67		7.20***		1.44***		19.36***		8.49***	
가족수	2명	40	29.95	a	20.43	a	35.54	ab	28.71	ab	18.33	b	13.66	ab
	3명	107	27.50	a	20.60	a	35.98	a	29.45	a	20.08	a	14.41	a
	4명	149	26.45	a	19.74	a	34.39	ab	28.19	ab	17.64	b	13.30	b
	5명이상	105	25.98	a	19.42	a	33.37	b	27.23	b	16.82	b	13.03	b
	F값		1.01		1.02		2.74*		2.12		9.30***		3.38*	

\*p<.05 \*\*p<.01 \*\*\*p<.001

이유는 현실적으로 여성은 집안에서 살림을 맡아해야 한다는 사고 때문에 주부역할에 대한 기대감은 줄어들지 않고 취업주부의 경우 직업일과 가정일에 대한 이중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강요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2) 목표지향성

직업목표지향성이 높을수록 편의식품 소비정도를 제외하고 시간절약재화 및 서비스는 차이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부의 사회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취업주부들도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직업일에 가치를 갖고 일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다중역할을 관리하고 가사일을 하는데 부족한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가사일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시간절약재화 및 서비스를 요구하고 소비한 결과이다.

가정목표지향성이 높을수록 시간절약재화 및 서비

스 요구와 소비가 줄어들었는데 이는 국내의 연구결과 (문숙재 · 정지영, 1991)와 일치하지만 Joag, Gentry와 Ekstrom(1991)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3) 취업동기

경제적 취업동기가 낮고 경제외적 취업동기가 높은 집단일수록 가사일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재화나 서비스로 대체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시간절약내구재와 서비스를 많이 요구하고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적 취업동기가 '중'인 집단이 다른집단보다 편의식품 요구와 소비행동이 더 많았다 (표 6).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취업주부의 시간절약재화 및 서비스 요구와 소비행동의 차이를 조사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표 6. 심리적 변수에 따른 시간절약재화 및 서비스 요구와 소비행동의 일원분산분석

변수	구분	빈도	시간절약내구재				편의식품				시간절약서비스			
			요구		소비행동		요구		소비행동		요구		소비행동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역할 과중	下(42점이하)	115	26.01	a	20.23	a	33.63	b	27.90	a	17.43	b	13.42	a
	中(43-49점)	145	27.03	a	20.04	a	35.80	a	28.94	a	17.99	ab	13.53	a
	上(50점이상)	141	26.80	a	19.59	a	34.43	ab	37.70	a	18.91	a	13.66	a
	F값		.90		.48		3.14*		1.90		3.30*		.19	
직업 목표 지향성	下(18점이하)	133	25.57	b	19.11	b	33.07	a	27.54	b	17.24	b	13.00	b
	中(19-21점)	123	26.70	ab	19.86	ab	35.15	b	27.79	ab	18.51	a	13.64	ab
	上(22점이상)	145	27.63	a	20.76	a	35.81	b	29.07	a	18.69	a	13.96	a
	F값		3.80*		3.31*		6.00**		2.69		3.79*		3.51*	
가정 목표 지향성	下(17점이하)	150	27.88	a	21.03	a	36.16	a	29.04	a	19.79	a	14.61	a
	中(18-21점)	135	27.16	a	20.04	a	34.66	a	28.03	ab	17.94	b	13.15	b
	上(22점이상)	116	24.50	b	18.41	b	32.86	b	27.21	b	16.28	c	12.63	b
	F값		10.65***		7.93***		7.71***		3.18*		19.84***		16.36***	
경제적 취업 동기	下(11점이하)	130	28.29	a	21.43	a	34.52	b	27.68	b	18.86	a	14.14	a
	中(12-15점)	161	27.45	a	20.74	a	36.16	a	29.06	a	19.18	a	14.11	a
	上(16점이상)	110	23.57	b	16.99	b	32.77	c	27.44	b	15.80	b	12.02	b
	F값		20.95***		25.82***		8.27***		3.09*		20.55***		20.04***	
경제 외적 취업 동기	下(9점이하)	120	24.09	b	17.60	b	32.18	b	26.89	b	16.02	b	12.17	b
	中(10-13점)	158	27.55	a	20.77	a	35.59	a	28.85	a	18.80	ab	14.00	a
	上(14점이상)	123	28.02	a	21.16	a	36.02	a	28.54	a	19.41	a	14.31	a
	F값		15.58***		17.52***		12.19***		4.12**		19.54***		19.06***	

\*p<.05 \*\*p<.01 \*\*\*p<.001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실증조사 결과 첫째, 우리나라 취업주부들의 시간 절약재화 및 서비스 요구는 소비행동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간절약재화 및 서비스의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둘째, 시간절약재화 및 서비스 요구와 소비행동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인구학적변수는 주부의 교육수준이었고 그외에 직업지위와 주부소득도 편의식품 소비행동을 제외하고 모두 영향을 미쳤다. 이는 가계의 의사결정에서 시간의 가치가 높아지면 시간을 다른재화 및 서비스로 대체한다는 가계생산 이론을 입증하는 것이다. 주부의 연령, 가족수등도 시간절약재화 및 서비스 요구와 소비행동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었는데 가계생산에서 가족원의 구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세째, 시간절약재화 및 서비스 요구와 소비행동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변수는 가정목표지향성, 경제적취업동기와 경제외적취업동기이고 직업목표지향성도 편의식품 소비행동을 제외하고 모든 변수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역할과중보다 주부 자신의 직업일과 가정일에 대한 가치와 취업동기가 가계의 의사결정에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여성의 취업이 더 활발해지고 직업일에 대한 가치를 중시하게 된다면 취업주부 소비자의 시간부족 현상은 늘어날 것이고<sup>3)</sup> 시간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시간절약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의 결과에서 직업지위와 주부소득이 편의식품 소비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아직까지 주부들이 외식은 가정식보다 위생적이 아니고 질이 낮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과 함께 식사준비는 주부들의 고유영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편의식품의 품질개선

및 다양한 편의식품 개발과 더불어 편의식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외식제품의 표준화를 통한 품질인증제도 등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시간절약재화 및 서비스가 구입시 비싸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가계생산으로 대체해야 하는 저소득층 취업주부들도 자신의 시간을 저렴한 시간절약재화 및 서비스로 대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한다. 예를 들어 집합주택이나 임대주택에서 비싼 내구재를 구매하는 것 보다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간절약재화 및 서비스 요구와 소비행동이 차이나는 것을 볼 때 기업측은 장기적 전략으로 소비자의 잠재적 요구를 고려하여 가사일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에게 아직까지 많이 보급이 되어 있지 않은 시간절약재화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생산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핵가족화의 진행과 가족수 감소로 가정에서 항상 식사를 준비한다는 것은 시간절약 차원에서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공동체적인 식당을 운영한다거나 식사준비를 간편히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한 방법으로 기업에서 직장내 식당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운영하고, 학령기 자녀를 둔 취업주부를 위해 학교급식을 지원하여 주부의 가사일을 절감시켜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으로 여성의 취업이 더 활발해지게 된다면 시간 자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고 취업동기나 직업일과 가정일에 대한 주부들의 가치도 더 많이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시간절약재화 및 서비스의 효율적인 이용은 여성이 직장일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의 한 부분을 만들어 줄 수 있으며 여성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김미향·한재숙·이효수(1988). 도시주부의 인스턴트 식품에 대한 인식 및 소비에 관한 연구: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6(3), 69-78.
- 2) 문숙재·정지영(1991).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와 그 만족 수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3), 131-152.

3) 한경미의 연구(1991)에서 출퇴근 교통시간을 합한 취업주부들의 직업노동시간은 평일의 경우 9시간 59분, 가사노동시간은 평일에는 3시간 32분, 휴일에는 6시간35분으로 나타났다. 취업주부는 평일의 경우 13시가 31분의 노동을 하는 셈이다.

- 3) 박명수(1990). *중·장기 노동력 수급전망*. 한국노동연구원.
- 4) 손덕수(1986). 가사노동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 *한국여성과 일*(247-293).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5) 이기춘 · 이은영 · 이기영 · 황인경 · 김민자 · 김영옥(1989). 산업사회의 소비자 형태 연구 : 서울시 가계의 의·식·주생활 관련 상품대체와 구매행동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7(2), 115-132.
- 6) 이승미(1989). 주부가 지각한 시시간제약과 가사노동의 수행방안 : 전문직, 비전문직주부와 비취업주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7) 이용학(1985). 우리나라 취업주부의 소비자 행동.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8) 조성은 · 문숙재(1991). 주부의 가사노동 시간관리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95-111.
- 9) 채옥희(1991). 노년기 주부의 가사노동 사회화 실태와 기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113-130.
- 10) 한경미(1991). 취업주부의 시간사용과 영향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71-190.
- 11) 통계청(1992). *경제활동인구연보*.
- 12) 통계청(1992). *한국표준직업분류*.
- 13) Agarwala, R. & Drinkwater, J.(1972). Consumption functions with shifting parameters due to socio-economic factor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54, 89-96.
- 14) Becker, G.S.(1965).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The Economic Journal* 75, 493-517.
- 15) Bryant, W.K.(1988). Durables and wives' employment yet agai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5, 37-47.
- 16) Jacobs, E., Shipp, S. & Brown, G.(1989). Working wives spending more on services and nondurables. *Monthly Labor Review* 112, 15-23.
- 17) Joag, S.G., Gentry, J.W. & Ekstrom, K.(1991). An investigation of a role/goal model of wives' role overload reduction strategie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8, 666-672.
- 18) Lee, J.Y. & Brown, M.(1986). Food expenditures at home and away from home in the United States : A switching analysi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8(1), 142-147.
- 19) McCracken, V.A. & Brandt, J.A.(1990). Time value and its impact on house-hold food expenditures away from hom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8(4), 267-285.
- 20) Mincer, J.(1960). Employment and consumption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42(1), 20-26.
- 21) Reilly, M.D.(1982). Working wives and convenience consump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8, 407-418.
- 22) Schaninger, C.M. & Allen, C.T.(1981). Wife's occupational status as a consumer behavior construct.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8, 189-196.
- 23) Strober, M.H.(1977). Wives' labor force behavior and family consumption patterns. *American Economic Review* 67(1), 410-417.
- 24) Strober, M.H. & Weinberg, C.B.(1980). Strategies used by working and non-working wives to reduce time pressur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6, 338-348.
- 25) Weinberg, C.B. & Winer, R.S.(1983). Working wives and major family expenditures :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0, 259-263.
- 26) Yang, Se-Jeong(1988). Expenditures for services, wife's employment status.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Mater's Thesis.